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이르면 2026년 통합 마무리... 소관 부처는 '교육부' 교사 자격·처우 통합, 추가 재원 마련 등 '난제' 여전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일단 첫발을 뗐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현재 유치원 입학은 매년 11월께 1~3회방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

를 할 수 있고, 가점이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 가점이 있어 맞벌이가 우대받는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맞벌이 가점이 유지될지 등은 미지수다.

다만, 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방식·우선순위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량 경과 규정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한다.

통합기관 등장은 늦어졌지만,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별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시범 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또 다른 난제인 교사 자격 문제의 해법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는 것 외에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는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재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 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사·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문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식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할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동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산 출항도민 정책비전 투어'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과 조용서 재부산 호남항우회장을 비롯한 출항도민들이 고향사랑원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산·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부산에서 미래 발전 위한 정책비전 투어

김영록 지사 등 300여명 참석

전남도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재부산호남항우회 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비전 토론 뿐 아니라 참가자 전원이 펼치는 고향사랑 원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비전 토론에서는 전남도 관계인구 확대 및 고향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항우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이뤄졌으며 '전남 국립대 설립'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항우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재부산호남항우회원들은 이날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 신청서 3000부를 전달했고 행사장 입구에서 운영한 전남 농특산물 시식·홍보, 귀농·귀촌·청년지원 정책, '고향에(愛) 여행가자' 관광 콘텐츠 등 고정 홍보부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발전에 대한 항우들의 열망과 성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항우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비전 투어는 전남도가 시·군을 방문해 도정 성과와 비전을 도민에게 보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도민과의 대화'를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으로, '함께 만드는 더 큰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중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모빌리티쇼' 현대차관에 전시된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차-기아 제공>

광주 GGM 생산 '캐스퍼 일렉트릭' 첫 공개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모빌리티쇼' 보도발표회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될 캐스퍼 일렉트릭과 함께 현대차의 전동화 비전을 소개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 대중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날 대중 앞에 처음 선 캐스퍼 일렉트릭은 현대차 전동화 모델만의 차별화된 픽셀 그래픽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 캐스퍼보다 커진 차체가 인상적이다. 전장보다 전장 230mm, 전폭 15mm가 넓어졌다. 휠베이스도 180mm 늘어나 고속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트렁크부 길이도 100mm 길어져 트렁크 공간이 기존 233 l 대비 47 l 가 늘었다.

경차임에도 체구를 카우면서 도로 위에서 존재감과 향상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건 캐스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던시그널 램프'로 픽셀 그래픽이 적용돼 전기차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보여줬다. 주간 주행등, 후면 리어램프, 뒷좌석 손잡이에도 픽셀 그래픽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보여줬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49kWh급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거리가 315km에 달한다. 무엇보다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단 30분만에 충전 가능하다. 또 차량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220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농부 감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